국내 은행의 수익성 제고

이상경*, 박수용**

Enhancing the Profitability of Domestic Banks

(Sang-Kyung Lee*, Su-yong Park**)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익성이 날로 약화되고 있는 은행산업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수익성 약화요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영역의 확대이다. 은행과 타 업종간의 합병을 통해 은행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재편이다. 예금과 대출의 갭에 의한 이윤이 아닌, 고부가가치 영역을 발굴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은행의 영업 전략을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아닌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내부조직의 슬림화이다. 조직의 슬림화는 반드시 단기성 수익성을 고려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은행의 미래와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넷째, 예금 및 여신 금리의 차별화이다. 은행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반영한 예금, 여신상품을 이용하여, 은행의 수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해외 진출 활성화이다. 은행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강화가 은행산업의 미래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s of bank industry whose profitability has been worse recently, finds out the causes of the reduced bank profits, and presents ways to solve the problem. The ways to strengthen the profitability are as follows:First, the expansion of business area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expand business that will create new profits through M&A between the bank and other industries. Second, reorganization for the high-value business is needed. The bank should no longer depend on the profits by deposits and loans, but develop high-value business area for high profitability. The bank business strategy needs to focus on the long-term profitability, not the short-term one. Third, the structure of bank needs to be slimmed. Slimming the structure should be based on the efficiency of business for the future, not for a short-sighted profitability. Fourth, the interest rates of deposits and loans need to be differentiated. The bank profitability can be enhanced by promoting deposits and loans which reflect low risk and high profitability. Fifth and lastly, advancing to abroad needs to be revitalized. Securing the oversea's bank markets can play a key role in strengthening the profitability of banks in the future.

keyword; 수익성, 예대금리, 리스크, 수익성강화, 금융영업

Ⅰ. 서론

국내의 은행산업이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더불어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최근 국내 은행은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영업환경 악화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가장 큰 수입원인 예대금리차의 축소와 부실여신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들로 인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순익은 25% 급감했다.[1]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의 금융사들은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2] BoA의 경우 2012년 42억달러의 순이익에서 2013년 114억달러로 3배 가량 늘었고, 씨티은행의 경우에도 75억달러에서 137억달러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업은행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소매금융 중심의 웰스파고의 경우에도 189억달러에서 219억달러로 순이익이 증가하였고 순이익 기준 1위를 기록했다.[3]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수익구조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은 수익성 악화라는 결과로 인하여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이 감축되어 정기예금이 감소하였고, 투자자들의 단기예치 선호증가와 은행의 저원가성예금 유치노력으로 단기성 예금비중이 증가하였다.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주택시장 정책으로 인해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예대금리차 축소로 인한 주 수입원인 이자이익 감소부분에서 기인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진 자산건전성의 경우 국제적으로 보면 평균정도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BIS 자기자본율 또한 시중은행의 경우 바젤3 규제 자본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4] 그러나 최근의 금융환경은 수익성 악화 요인에다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일련의 금융환경 변화가 향후 은행산업을 더 경쟁속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확산 등으로 금융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급변하는 중이다. 과거와 같은 영업방식, 조직시스템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한치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자욱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지금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행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인 Ⅰ장, 본문인 Ⅱ, Ⅲ장, 결론인 Ⅳ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은행 수익성 현황 및 수익성 저조 요인

1. 은행 수익성 현황

은행의 수익성을 살펴보고자한다면 먼저 은행의 수익구조를 표시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은행의 수익성을 측정하려면 측정하고자하는 해당년도 즉, 기준년도를 언제로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감을 측정할 수 있는 년도 즉, 비교년도를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년도를 2002년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비교시점을 금융위기 이전의 은행 수익성과 이후의 수익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기준년도 대비 비교년도에서 수익성의 저조 요인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1.1 은행 수익성 현황

먼저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총자산순이익률(Return on Assets;ROA), 자기자본순이익률(Return on Equity;ROE),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NIM)등을 들 수 있다. ROA는 은행이 운용하는 자산에 의해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이 지표는 자산 1단위당 이익의 크기를 나타내며 은행이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대출위주로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측성에 비추어 볼 때 ROA가 경영실적 지표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가 주로 사용된다. ROE는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이익이 비율로서 이 비율도 수익성 지표로 자주 이용되는데, 은행의 자기자본 활용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주 및 투자자에게 중요한 지표이

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은행의 경우 ROE가 낮은 반면 ROA는 높아서 양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ROA가 자산 1단위당 이익으로 측정되어 은행 경영진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를 보여주는 반면 NIM은 이자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을 이자수익을 얻는 운용자산으로 나누어 측정되며 이자수익자산의 운용에 의해 창출되는 이익이 중시되는 지표이다. 2002년 이후 국내 일반은행의 이 세가지 수익성 지표 추이를 보면 <표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급격히 낮아졌으며 그 이후 별다른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ROA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후 은행 경영이 안정되어가는 기간이었던 2002년~2004년 중에 1% 미만에 머물렀으나 2005년~2007년 기간에는 거시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은행 경영성과가 개선되면서 1%를 웃돌았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행했던 2008년 이후 0.5% 내외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2014년에는 0.3%대까지 낮아졌다.

<표 1> 일반은행의 수익성(Ⅰ)

(단위: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ROA	0.59	0.10	0.89	1.23	1.05	1.08
ROE	11.67	2.16	17.96	20.33	15.64	16.17
NIM	2.91	2.77	2.82	3.08	2.85	2.73
순이익	3.4	0.7	6.4	9.2	8.8	10.2
총자산(평잔)	571	676	720	752	834	948
자기자본(평잔)	28.8	31.1	35.5	45.3	56.2	63.1

<표 2> 일반은행의 수익성(Ⅱ)

(단위: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ROA	0.55	0.41	0.53	0.69	0.54	0.37	0.39
ROE	9.11	6.55	7.69	9.34	7.38	4.91	5.20
NIM	2.55	2.15	2.43	2.42	2.21	1.94	1.84
당기순이익	6.2	5.0	6.3	8.4	6.7	4.5	4.9
총자산(평잔)	1,123	1,214	1,193	1,212	1,247	1,239	1,271
자기자본(평잔)	68.0	76.1	81.9	89.6	90.5	92.6	94.3

주:1.(이자수익-이자비용)/이자수익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ROE는 2004~2007년 중 16~20%에 달하였으나 2008년 이후 7~9%에 머물다가 2013년에는 4.9%로 크게 낮아졌으며 2014년도에는 5.2%에 그쳤다. 이자수익자산의 단위당 이익률을 의미하는 NIM은 금융위기 이전에 3%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2.5%대 밑으로 하락한데다 2013년~2014년에는 2%를 밑돌았다. 이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일반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졌으며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5]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이 금융위기 이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주요국 은행의 수익성과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6] <표 3>에서는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국 은행의 ROA는 2008년에 급락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에 들어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상회하였다. 반면에 2007년 주요국 은행을 앞질렀던 우리나라 은행의 ROA는 2008년에 급락한 후 2009년을 저점으로 다소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2012년에 다시 하락하였다. 2013년에는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이 더욱 나빠져 ROA가 2009년의 저점 수준보다 낮아지면서 미국과 일본 은행의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7]

<표 3> 우리나라와 주요국 은행의 ROA 비교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1.10	0.48	0.39	0.54	0.66	0.47	0.21
미국	0.81	-0.03	0.55	0.63	0.68	0.70	0.84
일본	0.32	0.04	-0.21	0.31	0.27	0.34	0.44
영국	0.70	-0.12	0.29	0.33	0.29	0.17	0.19
독일	0.28	-0.40	-0.16	0.11	0.15	0.06	0.06

주: 1.일반은행+특수은행(농협은행,수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3년 10월)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은행의 수익성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국내은행 수익구조 현황

(단위:조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상반기	합계
1. 이자수익	39.1 (62.0)	38.0 (89.3)	34.9 (89.6)	34.9 (90.9)	16.5 (79.6)	163.6 (86.8)
2. 비이자수익	8.6 (18.0)	4.5 (10.7)	4.0 (10.4)	3.5 (9.1)	4.2 (20.4)	24.9 (13.2)
(수수료관련이익)	4.9 (10.3)	4.7 (11.0)	4.5 (11.6)	4.6 (11.9)	2.5 (12.0)	21.1 (11.2)
(유가증권관련이익)	5.1 (10.8)	2.2 (5.2)	0.9 (2.4)	1.0 (2.5)	2.0 (9.4)	11.2 (5.9)
3. 총이익 (1+2)	**47.7 (100)**	**42.6 (100)**	**38.9 (100)**	**38.4 (100)**	**20.8 (100)**	**188.3 (100)**
4. 판매와관리비	20.0 (42.0)	20.3 (47.6)	20.3 (52.2)	21.0 (54.8)	10.7 (51.5)	92.3 (49.0)
5. 대손비용	11.6 (24.4)	10.3 (24.2)	11.7 (30.2)	9.2 (24.0)	4.8 (23.2)	47.7 (25.3)
6. 영업외손익	△0.1 (△0.2)	△0.7 (△1.7)	△1.7 (△4.3)	△0.3 (△0.8)	0.3 (1.3)	△2.6 (△1.4)
7. 법인세비용	4.2 (8.8)	2.6 (6.1)	1.3 (3.2)	1.8 (4.7)	1.2 (5.9)	11.1 (5.9)
8. 당기순이익 (3-4-5+6-7)	**11.8 (24.6)**	**8.7 (20.4)**	**3.9 (10.0)**	**6.0 (15.7)**	**4.3 (20.7)**	**34.6 (18.4)**

자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자료

<표 4>는 2015년 상반기까지의 국내은행 수익구조 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86.8%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요국에 비해 이자 이익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음을 표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주요국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을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62.8%, 일본 70.3%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은행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산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자이익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39.1조원, 2012년도에 38.0조원으로, 2013년에는 34.9조원, 2014년에는 34.9조원, 2015년 상반기에는 16.5조원으로 급격하게 이자이익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이익은 총이익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이자이익 감소를 상쇄할 만한 대체 수익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총이익 감소 추세에도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를 살펴보면 (단위: 조원) 2011년에 20.0조원, 2012년에 20.3조원, 2013년 20.3조원, 2014년 21.0조원, 2015년도 상반기에는 10.7조원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요약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분야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은행의 험난한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8] 지금의 은행산업 현 상황은 수익성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이나, 이를 뒷받침할 여건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러한 은행의 수익성 약화 요인은 무엇이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은행의 수익성 저조 요인

은행산업의 수익성 저조 요인은 다양하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몇가지로 요약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찾아야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묶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2.1. 이자이익 및 수수료 수입감소

우선 수익성 약화 첫째 요인은 바로 이자이익 부진이며, 그 다음으로 수수료 이익이 정체또는 급감되고 있

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고비용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 요인이 결정적인 이유라 하겠다. 이자이익 부진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순이자마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2.30조원, 2012년 2.10조원, 2013년 1.87조원, 2014년 1.79조원, 2015년 상반기에는 1.60조원으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수금 조달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 하락시 순이자마진이 축소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5년 3월말 국내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 64.5%인 반면, 원화예수금의 고정금리 비중은 92%에 달하여 시장금리 하락시 대출금리가 먼저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및 중기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간 자산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금리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되면서 금리에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수익성 저조요인의 하나이다. 반면, 美 상업은행들은 높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아서 3%대의 안정적인 순이자마진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9] 즉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약화 원인의 첫째가 바로 이자이익 감소 및 수수료 수익의 감소 등이 주요원이라 하겠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갭을 이용한 이자이익의 안정적인 수입과, 수수료 수입을 통한 은행 수익의 안정성이 지속되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리의 인하로 인한 이자수익의 급감과, 은행간 고객 유치경쟁을 위한 수수료 수입의 면제가 바로 은행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2. 고비용 구조 지속

두 번째 요인으로는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는 부분이 수익성 저조요인의 하나이다. 인건비 위주의 비용구조이므로 판매관리비가 경직적이어서 수익성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이익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은 미국 상업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인건비 비중은 미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10]

2.3. 계좌이동제

다음은 향후 은행의 수익성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계좌이동제의 실시, 인터넷 은행의 은행시장 참여, 핀테크 기업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2015년 10월부터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계좌이동제란 주거래계좌를 옮길 경우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자동이체등이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의 경우 2011년 시행된 계좌이동제를 보완한 신계좌이동제를 2013년 9월 도입했는데 이후 고객들의 계좌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낫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 간에도 희비가 엇갈렸다. Barclays, Lloyds, HSBC, RBS 등 대형은행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계좌가 유출된 반면 Santander, Halifax, Nationwide등 중소형은행들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마케팅을 강화한 결과 많은 계좌를 신규로 확보할 수 있었다.[11] 수익성 증가와 수수료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인하여 은행산업의 수입원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금리인하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건비성 판매관리비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은행 수익감소라는 결과를 받아드리는 것이 어쩌면 필연이라 할 수 있다.

<표 6>신계좌이동제 도입 후 영국은행 변화

구분	유입	유출	순유입 (유출)
Santander	264,168	93,617	170,551
Halifax	251,709	95,070	156,639
Nationwide	90,403	44,576	45,827
RBS	9,752	45,694	-35,942
HSBC	80,426	128,549	-48,123
Lloyds Bank	225,225	277,210	-51,985
Barclays	39,395	122,691	-83,296

자료:Payment Council UK(2014년 합산기준)

2.4.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은행 간의 또 다른 경쟁 심화 요인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 6월 18일 산업자본 지분보유 50%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으로 진

입장벽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발표 했으며,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올해 내로 조만간 1~2개사에 예비인가를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단계로 현 은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사를 시범인가해주고, 2단계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를 해줄 예정이다.[12)]

<표 7>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구 분	내용
도입취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촉진 및 글로벌경쟁력 조속 확보 -(진입장벽)산업자본 지분보유 50%허용,최저자본금500억원 -(사전규제)예·적금,대출,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 영업 가능
추진계획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ch)을 통해 조기출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 제고 -(1단계)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2단계)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세부일정	-7월 인가 -9월 예비인가 -올해 내에 1-2개 예비인가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06.18)

국내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퇴출, 합병 등을 통해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경쟁강도는 완화되어 왔다. 1997년 말 국내은행 수는 32개였지만 2015년 9월 하나·외환은행 합병 이후에는 17개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점포가 없는 온라인상의 은행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무려 23년만에 은행업계 New Player가 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 은행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 은행간의 경쟁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은행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 핀테크 기업 출현

마지막으로 핀테크(FinTech) 기업의 도전이다. 계좌이동제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보다 좀더 장기적인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의 발전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사들의 성장은 은행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잠식해 가고 있다. 은행은 예금, 대출, 송금, 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다. 이러한 묶음, 즉 bundle 서비스가 고객들을 계속해서 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전국에 널리 분포된 점포가 이러한 bundle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채널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은행이 제공해온 다양한 서비스 중 1~2개를 특화하여 점포가 아닌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많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대출, 송금, 결제 등 특정 서비스에 특화하여 은행의 bundle서비스를 unbundle, 즉 해체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기술발전에 발맞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의 고성장은 향후 은행업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3)]

Ⅲ. 은행의 수익성 강화방안

1. 수익성 강화방안

은행의 수익성 저조 요인을 살펴본 결과 그 요인은 여러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강화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업무영역의 확대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금융시장의 효율성증대 노력 등에 의해서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이 과거와 같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겸업화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1999년 10월 22일 금융산업의 겸업주의 추세를 반영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행정부와 의회 간에 합의되면서 1999년 11월 4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드디어 1999년 11월 12일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까지 마쳤다. 이는 곧 60여 년간 은행과 증권, 보험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해온 글라스 스티걸(Glass-Steagall)법과 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 업무, 특히 보험업 진출을 제한하는 은행지주회사법이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러한 실질적인 금융 빅뱅을 시도하게 된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 혁명을 계기로 금융서비스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는 기존의 업무형태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완전 겸업화된 유럽의 금융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적인 금융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겸업주의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먼저 금융겸업화가를 추진하였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뱅카슈란스(bancassurance)라는 이름 하에 은행과 보험업이 다양하게 결합된 금융겸업화가 일찍부터 시행되어 왔다. 영국도 1986년 금융빅뱅을 통해 제반 금융업무를 자유화함으로써 은행과 증권, 보험업의 겸업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보험, 연기금, 투자신탁, 등 다양한 업종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상 완전한 의미의 금유겸업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수행하면서 자회사 형태로 보험회사나 주택저당회사 및 기타 금융관련 자회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대형은행들은 알피난츠(allfinanz)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모든 금융업를 취급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 조치가 시도되고 있다. 1993년 4월과 1996년 4월의 금융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상호 참여,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탁업 참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의 상호 진출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또한 1998년 3월 지주회사가 허용되고 12월에는 투신상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등 겸업화를 위한 조치가 가속화되어 2001년에는 금융기관 업무영역이 완전 철폐되어 상호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국,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영역을 구분하던 기존의 체제에서 경계를 철폐하여 영업범위를 자유화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14]

다음으로 수수료 수입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동산 투자자문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투자자문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인가 신청을 냈다. 신한은행도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은 은행들이 현재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인 PB(프라이빗뱅커)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수수료 수취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투자자문업은 금융과 부동산 분야로 나뉘는데 금융분야는 금융시장 전망을 분석하고 투자상품을 발굴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은 고객이 보유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거나 투자자산에 대한 가치 분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PB서비스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자문사로 등록, 1대1 계약을 통해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고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는다. 시중은행들이 투자자문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한 것은 저금리 환경에서 순이자마진(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이자수익만 갖고선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미국의 웰스파고가 꼽힌다. 소매금융에 입지가 넓은 웰스파고는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 감소와 저금리 환경에 이자수익이 늘어나지 않자 2009년 자산관리, 증권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던 와코비아 은행을 합병해 비이자이익을 2.5배나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2008년 40%에서 지난해 48.4%로 증가했다.[15] 개방화 및 자유화의 진전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익성 악화는 바로 은행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의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는 고객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국내은행의 주요 수익기반이었던 이자수익은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해 축소될 것이다.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성은 증대하나 대규모 IT투자로 서비스제공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은행제공 서비스의 유료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은행업무인 예대업무는 이자율변동에 따라 변동

이 심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그 질과 양이 변하는 등 불안정하다. 경기하락기에 자금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예대율의 하락과 함께 여신의 부실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변동은 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며 금리하락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수료 수익확대는 이러한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과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 송금수수료, 계좌유지수수료 등 수수료 수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적게 받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므로 경제쇠퇴기에 은행수익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있다.[16)]

1.2. 자율성 확대

과거 경제개발 단계에 있어 우리나라의 은행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업이라기보다는 실물 경제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예금을 통하여 국민저축을 동원하고 이를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은행에 대해 각종 금융규제와 함께 정책금융, 인사권 개입 등 직접적인 통제수단도 동원하였다. 은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은 장기적으로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금융자율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금융자율화는 과도기적으로 과잉여신 및 금융불안정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17)]

1.3. 고부가가치 사업주력

은행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의 하나는 고부가가치 사업의 주력이다. 은행의 추가적인 수익성의 창출을 위하여 국내 은행이 취약한 파생금융상품(IRCP ; Interest Rate and Currency Protection) 관련 업무와 ProjectFinancing, 기업의 인수·합병 (M&A ; Mergers and Acquisitions) 업무, 투자자문업무등 고부가가치 사업도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파생금융상품관련업무 (Interest Rate and Currency Protection : IRCP) 이다. 즉 각종의금리, 환, 기타 현물증권의 파생상품을 다루는 업무로 자산을 가격변동 리스크로부터 보호시켜서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이용한다. 둘째, Project Financing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한국산업은행 등을 선두로 대형시중은행들의 국제금융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흥시장인데다가 국내의 많은 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되어 외국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투자규모는 약 1조 2천억원~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은행이 Project Financing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상담업무 (Advisory)이다. 이는 기업의 인수 합병 (M&A)와 투자자문 업무 등, 은행의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업무이다. 기본적으로 도매금융의 업무내용인 이들 업무는 전통적인 은행의 예대업무에 비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강하다. 성공리에 전개되도록 하기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들 업무에서 나오는 수입은 자산의 금리라는 Stock 형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라는 Flow 형태의 것이 많다. 선진금융기관의 기업인수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업무는 단독으로 고객에게 제공되기보다는 때때로 여러 가지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일이 많다. 앞으로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에서 더 이상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고부가가치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18)]

1.4. 예금 및 대출금리의 차별화

은행 예금의 원가는 자금원가와 업무원가로 구성되므로 시장금리에서 자금원가와 업무원가를 합한 예금원가를 예금으로 나눈 예금비용률을 차감한 스프레드에다 예금액을 곱한 값이 은행이 예금조달업무를 통해 생산하는 부가가치이다. 업무원가가 크게 소요되는 요구불예금은 자금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원가가 적게 소요되는 정기예금(CD 포함) 등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시장금리에서 스프레드를 차감한 수준에서 예금금리를 결정한다. 또한 국내은행의 예금고객 중 은행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예금 고객에 대하여는 은행이 이익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가격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일정 예금잔액에 미달하는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예금계좌유지수수료를 징구하여 은행의 예금계좌 유지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전산비 등의 경비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19]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되면 높은 수준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성에 투자 하는 자금공급자와 높은 수준의 금리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사용하려는 자금수요자간에 자금중개가 가능하여 신용경색의 해소 및 은행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19]전게서, pp54~55 예금금리의 책정에 있어서 은행간 편리성의 차이를 금리로 환산하여 은행간 예금금리가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의 책정에서도 은행간 대출업무의 질 (리스크 부담 및 관리 등) 차이를 금리로 환산하여 대출금리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은행간 대출금리의 차별화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출업무의 질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별화를 고객이 수용하면 은행은 고객에게 더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 보다 질 높은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커진다.[20]

1.5. 해외진출 활성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을 인수합병(M&A)하는 등 해외 지점망을 18개국, 191개로 늘렸다. 신한금융도 올해 초 신한은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BME 등 현지 은행 두 곳을 인수했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와 손잡고 중국, 미얀마 등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얀마 최대 민간은행인 요마은행과 소매 및 모바일 금융, 농업금융 분야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 9월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계기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025년까지 해외부문 이익 비중을 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21] 은행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은행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소관)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국법인에 지분 10% 이상 투자, 외국영업소 설치·확장을 위한 자금지급 등은 신고사항이여서 그 타당성 검토 후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반드시 송금 이전에 신고수리 완료가 필수적이다. 은행법 상으로는 해외 현지법인·지점, 사무소 신설·폐쇄 시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이를 사후 보고로 규제 완화해야 한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의 은행산업이 해외로 나아가 수익성을 다양한 각도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현행 금융산업을 튼튼하게 육성하는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22]

Ⅳ. 결론 및 요약

지금처럼 은행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은행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의 업무가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내려 온 관행들이 현재의 초저금리시대에 직면하면서 갑작스럽게 부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시된 금융 선진국의 해결방법이 신흥선진국의 금융산업을 위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했어야 한다. 대다수의 금융그룹들이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몸집을 불리는 등의 노력들이 이어져 나왔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의 고속성장 후휴증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은 제2의 금융위기에 직면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저금리의 지속적인 현상이 예대마진을 근간으로 은행 수익성을 창출하던 금융기관은 수익성 악화라는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영역의 확대이다. 은행과 타 업종 간의 합병, 융합을 통해 은행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로의 진출이 절실히 요구 된다. 둘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재편이다. 예대마진이 아닌 은행업무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영역을 발굴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은행의

영업 전략을 단기적 수익성 확보가 아닌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한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그 사례로 과거의 역모기지론 상품 및 연금관련 상품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은행의 수익성 향상과 고객의 생활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내부조직의 슬림화이다. 조직의 슬림화는 반드시 단기성 수익성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은행의 미래와 관련된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넷째, 예금 및 여신 금리의 차별화이다. 은행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반영한 예금, 여신상품을 활용하여 은행의 수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해외 진출 활성화이다.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강화가 은행산업의 미래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Opinion, 국내 시중 은행의 현 상황, 금융시스템 안전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2014

2. 전게서.pp1

3. 전게서.pp1

4. 전게서.pp1

5. 이내황,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2015. 경기대학교대학원논문 pp7~8

6. 전게서.pp8

7. 전게서.pp8~9

8. 한국은행 및 금융정보. 은행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시점. 2015. pp

9. 전게서.pp

10. 전게서.pp

11. 김성진,이혁준, 갈수록 악화되는 사업환경, 은행신용위험의 방향성 진단. 2015. pp

12. 전게서.pp

13. 전게서.pp

14. 최정민,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대학원논문, 2001년.pp

15. 이태명, 저성장 파고를 넘어 도약하는 금융 16. 장옥희, 국내은행의 수익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은행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연세대학교대학원논문, 2002.pp

17. 전게서, pp39~40

18. 박상욱,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수익성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원논문, 2008

19. 장옥희, 국내은행의 수익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논문, 2002. pp54~55

20. 전게서 pp54~55

21. 이태명, 저성장 파고를 넘어 도약하는 금융사, 한국경제신문, 2015.10.pp

22. 한국은행및금융정보, 은행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시점, 2015.pp